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학교 휴업 확대

‘개강연기’ 교육부 뒷북대처... 이미 1만명 학교 인근에

(유학생)

교육부 中 유학생 9582명 입국 통보 中 입국 숨기는 등 현황 파악 어려워 원룸 등 자취방으로... 불안감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교육계가 쏠쏠 얼어붙었다. 각급 학교의 휴업이 이어지고, 각 학교에서 열리는 대형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5일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하기 이전에 이미 중국인 유학생 약 1만명이 입국해 대학 인근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의 뒷북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7일 10시 기준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한 유·초·중·고·특수학교는 647교로 전날 592교에서 55교 증가했다. 유치원이 459교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106교, 중학교 33교, 고등학교 44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5일 중랑구와 성북구 등 확진자 자택 인근이나 장시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교내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 체류장소 인근 학교 42교에 휴업을 명령한데 이어, 7일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인접 학교 32교를 추가로 휴업 명령했다. 이들 학교는 실제 휴업한 뒤 잠복기 14일을 고려해 우선 19일까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지역에 밀집한 학원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확진자 등의 자녀가 다니는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해서도 휴원을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해 8일 전국 295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는 당초 시험 접수자 17만5226명 중 약 68%인 11만9329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4만9555명은 응시를 취소했고 6342명은 당일 결시했다. 21명은 기침 증상이나 중국 방문 등의 사유로 특별고사실에서 격리돼 시험을 치렀다.

유치원과 초중고 등은 최대 10%까지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

는 8일 “지난 4일 각급 학교에 학교장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학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개강일도 적게는 1~2주에서 최대 4주까지 개강을 미루기로 했다. 특히 개강을 앞두고 중국 경유 유학생이나 중국 국적 유학생들이 대학가로 유입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중국 국적 유학생과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등 총 9582명이 지난 1월 21일~2월 3일까지 입국한 사실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소재지 등 현황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들은 서둘러 이들에 대한 현황 조사에 나서고 있으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중국 입국 사실 등을 숨기는 인원도 있어 현황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모 대학 관

계지는 “교육부 신종 코로나 대응팀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강 권고만 하고 뒷감당을 모두 대학에 떠 넘기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인 유학생이 입국하고 있으나, 대학들 기숙사 수용은 10%도 채 안되고, 인근 원룸 등 자취방으로 가고 있어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시부터 중국 전역에서 오는 유학생을 포함해 해외에서 오는 모든 유학생들이 대학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과 부처간 협력을 통해 공항에서 중국 입국 학생들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의무화와 별도 입국장을 마련해 검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특별입국절차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트남 등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지역에서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건국대, 신약 개발기업과 100억 공동 연구 “코로나 감염자, 日 7명이하 접촉시 감소세로”

건국대 연구팀이 혁신신약 개발기업과 100억원 규모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9일 건국대에 따르면, KU융합과학기술원 연구팀이 혁신 신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인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경구용 안전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규 후보물질 관련 기술 도입·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도입한 신규 개발 과제는 건국대학교 연구팀이 발굴한 특정 표적단백질에 대한 저해제 후보물질 후보물질로, 선급금(upfront fee) 3억 원을 포함해 마일스톤(milestone) 방식으로 총 100억 원 계약 규모로 체결됐다.

이번 계약에 따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후보물질의 향후 개발 및 허가에 대한 단계별 진척에 따라 최대 97억 원의 중도기술료를 받게 된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이정규 대표는 “국내 연구진의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를 이어 받아 미중측 의료수요가 큰 안전질환 분야에서 혁신적인 경구용 치료제 개발 계기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후보물질을 발굴한 건국대 연구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신규 후보물질의 혁신 신약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창선 단장은 “건국대학교 연구팀의 우수한 기초 연구 성과를 계기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공동 연구 협력을 수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내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한 혁신 신약 개발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회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기술이전 소감을 밝혔다. /한용수 기자

KAIST 전염병 확산 시뮬레이션 연구 “어떤 감염병도 확산 꺾이는 점 존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 코로나) 등의 감염병 감염자가 하루 평균 7명 이하로 접촉하도록 통제할 경우 감염자 수가 감소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논문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9일 KAIST에 따르면, 바이오및뇌공학과 이광형 교수(사진)가 교신저자로 참여하고, 당시 지도 학생이던 (주)바이오브레인 김기성 대표가 제1 저자로 참여한 ‘복잡계 네트워크를 이용한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연구’ 주제 논문을 2017년 5월 ‘BMC 바이오인포매틱스’ 18호에 게재했다.

논문은 2015년 5월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 ▲감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전체로 확산되는지 ▲ 혹은 어느 시점에서 그 기세가 꺾일 것인지 ▲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은 과연 인류사회를 몰락시킬 것인지 ▲장관하다가 언제 사라질 것인지 등의 궁금증에서 시작됐다.



당시 메르스는 2012년 4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한 급성호흡기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전염병의 확산은 ‘감염성(자체 감염력, 병원체 특성, 접촉 여부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력)’·‘지속성(감염 이후 완치까지 시간)’·‘사회구조(접촉자수)’ 등 3가지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우선 감염병에 노출된 사회(구조·인구)를 나타내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네트워크에는 대상 인구와 평균 접촉자 수를 표현하고, 실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회를 표현하기 위해 접촉자 수를 변화시켜 감염병 확산 추세를 관찰했

다. 연구팀은 감염자 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전환점을 VRTP(Value of Recovered at Turning Point)라 정의하고 감염병의 기세가 꺾이는 시점으로 해석했다. 연구 결과, 감염병이 사회에서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전환점(VRTP)이 존재한다. 연구팀은 이를 감염자가 전염병으로부터 회복되거나 사망으로 인해 전염병 확산경로가 차단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연구팀은 측정이 가능한 누적 회복자가 감염병이 꺾이는 점의 선행지수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연구팀은 아울러 어떠한 감염병이라도 접촉자 수를 하루 평균 7명 이하로 줄이면, 전체를 감염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교수는 “어떠한 감염병도 확산이 꺾이는 점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과 또 그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 일 평균 접촉자 수를 7명 이하로 줄이면 인간은 어떠한 감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우석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선정

우석대학교는 산학협력단 체육복지융합연구소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체육복지융합연구소는 지난해 전북도내 예체능 전공자와 중도 포기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 현장실습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체육복지융합연구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8500만 원을 지원받아 2020년 12월 말까지 전북 지역 예체능 전공자와 중도 포기자를 대상으로 취업 연계사업 및 교육 훈련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전북지역 내 일자리 유망기관들과의 정기적 교류회를 진행해 신규 일자리 발굴과 지역 기업 일자리 박람회 및 취업 캠프 개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소장인 조현철(사진) 체육학과 교수는 “지역 내 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인식 개선을 통한 예체능 전공자와 중도 포기자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서울대, 친환경 ‘전기 셔틀버스’ 시범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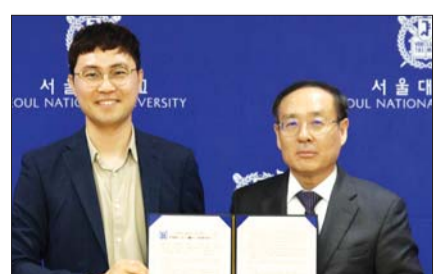
서울대관악캠퍼스에 친환경 전기셔틀버스 2대가 시범 운영된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주)와이즈웨이와 그린캠퍼스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관악캠퍼스 전기 셔틀버스 시범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교내에서 셔틀버스 2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친환경 전기셔틀버스 차량은 한신자

동차의 VANESSE 14인승 차량 2대로, 역방향셔틀(호암교수회관 경우) 구간에서 이달 1일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대는 친환경 전기셔틀버스 시범 운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제공을 적극 지원키로 했고, (주)와이즈웨이는 학생 등 구성원의 셔틀버스 이용편의를 위해



서울대 오세정 총장(오른쪽)과 (주)와이즈웨이 김철순 대표이사(왼쪽)가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